

장상진씨, 번암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장수군 번암면은 제53회 번암면민의 날(4월 29일) 행사를 앞두고 지난 17일 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발전과 화합에 크게 공헌한 장상진 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장상진씨

에향장에 선정된 장상진 씨는 2009년부터 재경 번암면 향우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재경 번암면 향우회 정기총회 및 재경 장수 사랑 한마음 체육대회, 장수 한우양사과랑 축제 등을 개최, 번암면민과 향우회원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또한 번암중학교 제9회 동창회 설립과 회장 및 총무를 역임하며 고향에서 개최되는 번암면민의 날, 물빛축제 참여 및 지원을 통해 고향발전과 화합을 위해 크게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9일 번암초등학교에서 개최되는 제53회 번암면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로컬JOB센터, 농촌일자리 서포터즈 발대식

무주군로컬JOB센터는 '농촌일자리 서포터즈'를 선발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농촌일자리 서포터즈 운영은 도시구직자 발굴과 농촌일자리 참여유도 및 홍보를 위한 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17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 '농촌일자리 서포터즈' 위촉 및 발대식에는 무주군 관계자와 센터 관계자, 이번 서포터즈로 선정된 5팀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농촌일자리 서포터즈'는 도시민 중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도와줄 대상자를 선발, 2023년 12월까지 로컬JOB센터에서 진행되는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홍보는 물론 구직자 공동발굴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군가족센터, 가족관계 향상교육 실시

임실군가족센터(대표 심민)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가족관계 향상교육 '패밀리가 됐다'를 전라북도 장성군에 위치한 장성체육관에서 1박 2일간 진행했다.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9가족 38명이 참여한 이번 가족 캠프는 신록이 푸르름을 가득 머금은 4월 부모와 자녀가 자연속에서 산림치유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체감하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

이번 가족 캠프에 참여한 참여자 가족은 평소 여러 여건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외부 활동이 쉽지 않았는데 가족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사춘기 자녀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민 군수는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안군행정동우회, 용담호 환경정화활동

진안군행정동우회(회장 이부용)는 18일 상진면 월포리에서 용담호의 수질 보전을 위한 환경정화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동우회원과 상진면민 등 80명이 참석했으며, 상진면 월포리 금자미울 및 유채꽃밭 주변 각종 폐기물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했다.

이부용 회장은 "곳은 날씨에도 환경정화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용담호 관리는 물론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환경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동우회는 공적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150명의 퇴직공무원 단체로서 그동안 군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온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청정한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학생 맞춤형 교과용 도서 개발 노력”

전주대 과학교육과, 특수교육 중교 과학과 국정교과서 편찬기관 선정

전주대학교 과학교육과는 '2022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중교 국정도서(과학과) 편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는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로부터 약 9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과학과(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전자 저작물 등 6책 2종을 편찬한다. 교과서 편찬은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윤마병 교수가 연구 및 집필 책임자를 맡은 가운데 전주대와 전국의 관련학과 교수, 장학사, 교장 현장 교사 등 총 45명이 참여한다. 교과서 집필은 2024년 11월까지 완성해 2025년부터 전국의 중교등학교 특수교육 과학과 수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마병 교수는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사 경험을 토대로 한국지리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교육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윤 교수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 검토위원과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경험을 인정받았다.

윤 교수는 과학교육 전문가로서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관심을 두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장애 학생 대학 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전북교육청, 대전교육청과 협력해 운영해 오고 있다.

윤 교수는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생활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특수교육 과학과 국정교과서 집필은 아이들과 특수교육 선생님, 학부모 등 모두가 참여하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배움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뜻깊은 작업이 될 것"이라



윤마병 교수, 연구·집필 책임자로

고 말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삶과 연계되는 생활가능 중심으로 학습경험의 질 개선과 학생 맞춤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필된 과학 교과서와 전자도서는 전주대학교 국정도서 편찬위원회" 이름으로 발간돼 전국에 배포되기 때문에 전주대와 과학교육과의 자긍심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장은성기자

‘의료용 대마의 현재와 미래’… 전북대서 심포지엄 열려

전북대학교 약학과와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회장 심현주)가 의료용 대마에 대한 새로운 시야와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는 지난 1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에서 '의료용 대마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대마 연구 분야의 전문가인 가톨릭대 의대 김세용 교수(대한칸나비스 연구학회 초대 회장)와 고려대 의대 민두재 교수(칸나비노이드 연구회 대표)는 대마의 의학적 활용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동향과 의료용대마의 적용분야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전경화 교수(이화여대 약대)는 대마유래 의약품 개발의 연구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만호 경북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부단장은 경북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의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정재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는 첨단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용 대마 원료소재의 국산화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심현주 교수(전북대 약대)는 "이번 심포지엄은 대마 연구 분야에서 선두적인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대마의 의학적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나눈 이후 대마 연구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년의 갈과 같은 대마의 활용 및 규제에 관련해 추계에는 3개의 대마 연구회가 연합해 11월 24일 서울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제3기 효지도사 양성교육 개강

진안군은 18일 진안군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에서 제3기 효(孝)지도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사)전북노년복지문화연구원(총재 소순갑)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개강식에는 교육수강생 13명, 내·외빈 등을 포함하여 20명여가량이 참석했다.

이날 입학식을 가진 제3기생 13명은 10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효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교육내용은 효의 의미, 효 인식교육의 필요성, 현장학습, 효아 도덕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다.

효지도사 과정 이수자는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 교육 및 인성교육지도를 담당할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귀농귀촌종합센터, 1인 가구 여성 대상 교육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18일 (예비)귀농·귀촌인 중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귀농촌 교육(이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진안군 관내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진안에 대한 소개' '전매 여성 귀농촌인의 사례발표',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농촌문화' 등 3박 4일 간의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 중 농촌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를 맡은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박후임 이사는 "아직 농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이번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귀농촌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간 친목 도모와 함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 '복(福)맞이 마을잔치'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8일 성덕면 고현마을을 끝으로 서부지역 읍·면 7개마을을 대상으로 한 복(福)맞이 마을잔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복(福)맞이 마을잔치'는 지난 2월 민경음 산본마을을 시작으로 청하면 대청마을, 광활면 화양2구마을 죽산면 외리마을, 부방면 금산마을, 진봉면 상결마을까지 마을별 주민 50여명이 참여하여 흥겨운 잔치 마당을 통해 주민화합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김제시가 체결한 농촌협약의 일환인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농촌협약지원센터인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주관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복(福)주머니 만두빚기, 떡국 공동 밥상 나눔과 함께 문화·예술 공연과 어울림 행사로 흥을 돋우고 마을별 공동체 활동을 반영한 주민 주도의 마을잔치로 진행되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김제시(지원봉사센터)의 스포츠 데이 핑 봉사, 마을 답장 페인트칠 봉사 등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마을잔치가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이어져

18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이 이어졌다. 이날 대전노은공관장 중도매인 101호 이광재씨가 500만원, (주)DH건설에서 100만원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대전노은공관장 101호 중도매인 이광재 씨는 "지역의 후배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기탁의 뜻을 밝혔다.

(주)DH건설 김동환 사장은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지역을 빛낼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힘이 닿는 한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대전노은공관장 중도매인 101호 이광재 씨는 고향이 무주이며, 무주읍과 구원동 하나로마트에 청과와 야채를 납품하고 있다. (주)DH건설은 무주군에 있는 지역업체로 토공, 철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은 "지역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지역을 빛내는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경찰, 음주운전 스쿨존 특별단속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주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과 스쿨존 불법주정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 진행했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TG·진출입로 등 단속 외에도 주말·주간 스쿨존 등산·관광지 등 단속 취약 시간과 지역을 선정해 비접촉식 감지기과 지그재그식 단속(유증가·식당가 주변에서 인접경고등, 라바콘 등을 활용하여 S형으로 시행 유도, 음주 의심차량 발견시 선별적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전수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 조치하고 인성캠프, 보도살치, 횡단보도 불라드 등 시설물을 대폭 보강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알림

▲제43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예술공연 = 일시: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전주종합경기장(축구장 1층), 주최: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조직위원회, 주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전라북도장애이문화예술사단, 문의: 063-286-6678·231-6669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23년 11월 20일 등록(2년)  
(9)68-912 전주사 온누리 7 건물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4 columns: 전주지사, 순창지사, 남원지사, 임실지사, etc. with phone numbers.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